

제 27 장

교환이론

학습목표

1. 교환이론의 사회관과 기본 가정을 이해한다.
2. 교환이론의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3. 교환이론의 사회변동과 발달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4. 교환이론을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한다.

George Casper Homans
(1910-1989)



교환이론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밝혀내고자 했으며,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교환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변화와 안정을 설명하는 사회학이론이자 심리학 이론이다. 다시 말해 사회교환이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집단이나 조직 더 나아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

이다. 즉, 교환(exchange),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 갈등(conflict) 그리고 강요(coercion)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표적 범주 중에서 사회교환이론은 교환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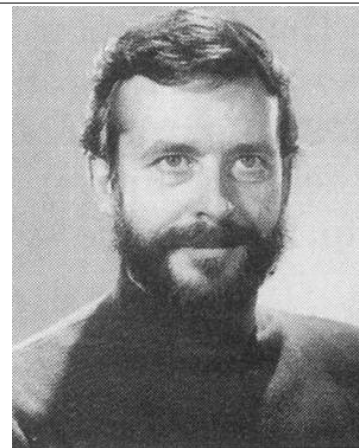
사회교환이론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구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보상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모든 개인은 주관적인 비용-효과 분석과 대안 비교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교환행동을 하며, 최대의 보상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자원교환 행위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사회교환이론은 공리주의 고전경제학이론과 행동주의이론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Turner, 2019; 강정한 외, 2013). 먼저 사회교환이론은 고전경제학자인 Thomas Hobbes, Adam Smith, Jeremy Benda 등과 같은 영국의 공리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개인은 타인과의 교환을 통해 이익과 효용(utility)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개인 간의 교환행위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기능적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 또한 사회교환이론은 B. F. Skinner 등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을 수용한다. 사회교환이론은 인간은 보상을 최대화하고,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행동 대안을 선택하므로,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환행위라고 본다.

사회교환이론은 1960년대 George Casper Homans가 구조기능주의이론을 비판하여 행동주의적 교환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정립된 이론으로, 사회의 근본적 특성을 보상 또는 효용을 확실하게 하려는 욕구에 의해 추동된 행위자 간의 일련의 자원교환을 위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후 Peter Blau는 교환관계를 통해 권력이 분화, 유지,

Richard Marc Emerson
(1925-1982)



변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교환이론과 갈등이론을 통합한 변증법적 교환이론을 제시하였다. Richard Marc Emerson과 Karen Schweers Cook은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 자체의 특성보다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유형 즉, 행위자간의 연결망(network)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교환이론과 네트워크이론을 통합한 교환네트워크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발전과정을 거쳐 교환이론은 1960-1970년대에 대표적인 사회학이론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론은 이익과 보상을 최대화하고 처벌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환행동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가 형성, 유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인간을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 문화의 영향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집단이나 사회조직의 상호작용과 갖는 연관성을 파악하고, 사회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이다.

1. 사회관과 기본 가정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점

사회교환이론은 사회적 교환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변화와 안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사회교환이론은 개인 간의 교환을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이 집단이나 조직 더 나아가 사회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가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다.

사회교환이론에서는 개인 간의 교환행동이 확장 분화되어 사회구조

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즉, 교환행동이 상호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의존적 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Homans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사회조직화가 이루어지고, 권력과 역량에 따라 사회조직이 분화되고 더욱 정교한 사회구조가 형성된다(Turner, 2019)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 교환은 경제적 교환과 다르게 사회성원 사이의 책임감, 정의, 헌신, 감사와 신뢰 등과 같은 정서적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지속되게 만든다. 교환행동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려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의해 일어나므로, 합리적인 안정적 사회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교환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지닌 자원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가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부터 사회적 인정, 존경 또는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차이와 교환방식 등에 따라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는 권력-의존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권력-의존관계는 조직 내의 분화를 촉진하고 더 나아가 통합과 갈등의 변증법이 작용하여 사회구조가 안정되거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회교환이론에서는 인간을 목적지향적이고, 보상을 추구하는 유기체(goal-oriented and reward seeking organism)로 본다. 즉, 인간은 무한 경쟁체계 속에서 타인과의 교환행동에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보상을 통한 이익과 효용은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성취하려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규정한다. 모든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경제적 교환과 사회적 교환을 할 때 이와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교환행위의 대안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만큼의 보상이 돌아오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로 본다. 즉, 인간은 보상과 처벌과 관련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선의 행동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이기적 성향과 이타적 성향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교환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가치 있는 자원을 최대화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는 이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경우 지나친 탐욕과 경쟁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어느 누구도 지속적으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교환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함과 동시에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에 절제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한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비용이나 손해가 기존의 교환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신(commitment)을 하며, 형평(equity)을 포함한 사회정의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는 이타적 성향과 이기적 성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기본 가정

교환이론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다양한 이론이 포함된 이론적 준거틀로서, 이론마다 기본 가정이 다를 수 있다. 교환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이론들은 인간본성과 관계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의 핵심적 가정은 ① 인간은 보상과 이익을 추구하고, 처벌과 비용을 줄이려 하며, ②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며, ③ 인간이 보상과 비용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상황과 시간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④ 교환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문화적 규범 내에서 이루어지며, ⑤ 가치 있는 자원 보유 정도와 교환 행동의 결과에 따라 권력-의존관계가 형성, 분화되어 사회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West and Turner, 2007). 이러한 교환이론의 기본 가정을 살펴보면, <표 27-1>과 같다(Nye, 1978; Robbins et al., 2006).

< 표 27-1 > 교환이론의 기본가정

- 개인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즉, 개인은 보상이 가장 많고 비용이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안을 선택하므로, ‘행동=보상-비용’의 공식에 의해 설명된다.
- 개인의 행동이 과거에 보상을 받았다면, 개인은 이전의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개인이 기대한 것보다 많은 보상을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처벌을 받게 되면, 개인은 행복해할 것이며 만족스러운 듯이 행동할 것이다.
- 개인이 여러 번에 걸쳐 동일한 보상을 받으면, 보상의 가치는 줄어든다.
- 즉시 얻는 결과가 동일하면 개인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을 선택하고, 장기적 결과가 동일하면 즉시 얻는 결과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 교환은 문화적 규범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은 더 많은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과 가장 많은 자율성을 제공해주는 지위나 관계를 선택한다.
- 개인은 예측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가장 높은 대안과 자신의 안전을 가장 잘 보장해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 교환관계에서 상호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이 깨지면, 상호관계는 끊어지게 된다.
- 자신과 가치관이나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 맺기를 회피하며, 상하관계 보다는 공평한 관계를 맺기가 쉽다.
- 가치 있는 자원을 많이 소유한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에 비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며, 이로 인해 권력-의존관계가 형성된다.
- 교환관계 상의 권력-의존관계에서 권력 불균형이 발생하면, 이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여 통합을 이루거나 갈등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2. 주요개념

교환이론의 범주에 속하는 이론 중에서 대표적 이론은 Homans의 행동주의적 교환이론, Blau의 변증법적 교환이론, Emerson과 Cook의 교환네트워크이론이 있다. 대표적인 교환이론의 주요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상, 자원, 비용 그리고 사회적 행동

Homans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심리학적 원칙 특히 행동주의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자 했으므로, 그의 이론은 행동주의적 교환이론이라고 부른다. 그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social behavior)을 보상과 비용에 입각하여 설명한다. 즉, 사회적 행동을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보상이 주어지거나 비용이 요구되는 활동의 교환이라고 본다.

Homans는 ‘Y라는 교환행동에 따르는 X라는 심리적 상태가 클수록 또는 작을수록, Y라는 행동을 더 또는 덜 하게 된다.’는 명제를 제시하는데, 이때 X에는 보상, 비용, 확률(probability)뿐 아니라 가치(value)도 포함된다(강정한 외, 2013). 이처럼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 즉, 보상을 주거나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행동한다. 이때 교환행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최대화하여 이득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하려 한다.

Homans는 교환행동은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교환의

과정은 개인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지만 사회적 수준에서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유지된다고 본다. Homans는 식량, 화폐, 도덕률 또는 지도력(leadership) 등의 자원을 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사회조직화가 이루어지고 보다 정교화되어 가며, 권력과 집행 역량에 따라 사회조직이 분화되면서 더욱 정교한 사회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Turner, 2019).

Homans의 행동주의적 교환이론에서는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상, 자원, 비용이라는 개념을 주로 활용한다. 보상(reward)은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행위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가능성과 확률을 높여주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개인이 교환관계에 참여하여 타인과 상호 작용할 때 얻게 되는 즐거움, 만족감, 인정, 존경, 동의, 감사, 돈과 물질, 도움 등이 포함된다. 자원(resource)은 교환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진 모든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을 말하며, 감정, 매력, 서비스, 물질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교환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고, 권력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용(cost)은 교환관계에서 개인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의미하며, 상대방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교환관계에 참여함으로써 잃게 되는 자원과 그 관계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교환관계에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Homans는 교환관계가 핵심인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Ritzer 2016).

첫째, 성공명제(sucess proposition)로서,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받을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정행동에 대한 보상이 더 자주 주어질수록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는다. 보상과 보상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행동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불규칙적인 간헐적 보상보다는 규칙적 보상이 행동반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둘째, 자극명제(stimulus proposition)로서, 과거에 어떤 자극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보상받았다면, 현재의 자극이 과거의 자극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행동을 유사한 상황에서 확대 재생산하려는 성향 즉, 일반화의 과정에 관한 명제이다.

셋째, 가치명제(value proposition)로서, 특정행동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더 큰 가치를 가질수록, 그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정행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 보다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정적 가치인 벌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넷째, 박탈-포만 명제(deprivation-satiation proposition)로서, 특정행동에 대한 보상을 더 자주 받을수록 보상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특정한 보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면, 행위자의 보상에 대한 만족도는 줄어들게 된다.

다섯째, 공격-승인명제(aggression-approval proposition)로서 두 개의 하위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행동에 대해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처벌을 받으면, 화를 내고 공격적 행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행동에 대해 기대했던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합리성 명제(rationality proposition)로서, 대안적 행동 중에서 특정 행동을 선택할 때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가치(value)에 그 결과를 얻게 될 확률(probability)을 곱한 값이 더 큰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는 행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보상도 높고 동시에 보상을 얻을 확률도 높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2) 교환과 권력관계

Blau의 이론은 교환이론과 갈등이론을 통합한 변증법적 교환이론으로 불린다. 그는 미시적인 행동주의적 교환이론이 거시적 사회구조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인과 조직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회과정을 분석하여 사회구조를 이해하려 했다. 다시 말해 Blau는 개인간의 교환과 달리 개인과 조직사이의 교환에서는 규범과 가치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교환을 통해 권력이 분화, 유지, 변화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다.

Blau는 모든 사람은 조직에 공헌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등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얻으려는 경제적 교환을 한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적 교환은 대부분 제약에 의한 것으로 자발적 교환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 교환은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등가적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가 한 행동에 대해 B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을 때, A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감사 표현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고 B는 충분히 보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등가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교환은 뭔가를 받았을 때 어떤 것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특정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수업

의 과제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때 똑같이 과제수행을 돕는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나 점심 한 끼를 사는 것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교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사회관계가 형성된다.

Blau의 변증법적 교환이론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urner, 2019)

첫째, 합리성의 원칙(rationality principle)이다.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 서로에게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성의 원칙(reciprocity principle)이다. 보상을 교환할수록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의무가 다음 번의 교환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교환관계에서 상호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면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호성의 규범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정의의 원칙(justice principle)이다. 더 많은 교환관계가 성립될수록 특정한 비용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한 교환규범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정한 교환규범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규범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한계효용의 원칙(marginal utility principle)이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보상에 대해 포만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그 행동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행동도 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불균형의 원칙(imbalance principle)이다. 사회단위들 간의 특

정한 교환관계가 더 안정되고 균형을 이룰수록 다른 교환관계는 불안정하고 불균형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교환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가치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한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때 가치있는 자원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그런 자원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인정, 존경 또는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교환관계에서 권력을 갖게 된다. 이들은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이 되는 자원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처벌을 가하거나 많은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으로써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리고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물리적 힘이나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자원 없이 건디기 어려워질수록,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한 사람은 더 많은 존중과 인정 더 나아가 복종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조직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권력의 분화가 일어난다.

사회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환의 상호성 원칙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교환관계에 불균형 상태가 유발되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박탈감이 높아지게 된다.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게 되면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때 조직 내에서는 지배-피지배 영역에서 통합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발생하게 된다. 조직은 적절한 교환과 관련된 정당하고 공통의 가치를 반영한 규범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권력이 정당화되고 개별성원이 지배자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위로 전환됨으로서 조직 내의 경쟁은 완화되고 조직이 재통합되게 된다. 그러나 정당하고 공통의 가치를 반영한 교환관계의 규범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지배자들이 더 많은 박탈감을 경험하고 이념적으로 체계화되고 피지배자간의

연대감이 강해지면 지배자에게 저항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Blau는 사회구조 내에서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통합을 향한 긴장과 저항과 갈등을 향한 긴장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힘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사회적 조직화는 조직내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힘과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저항을 하는 힘 사이에 잠재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며, 이는 불가피하게 사회구조 내에서 통합과 저항 사이의 변증법을 창출하게 된다.

3) 교환네트워크와 권력-의존관계

Emerson은 개인과 집단사이의 교환이 동일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라는 점에 관심을 갖고, 교환이론과 네트워크이론을 결합한 교환네트워크이론을 제시하였다. Emerson은 교환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가 아닌 기존의 교환관계가 존재할 때 이러한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즉,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 자체의 특성보다 행위자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유형 즉, 행위자간의 네트워크(network)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Emerson은 사회구조를 자신의 자원가치를 확장하려는 행위자간의 교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자원의 활용가능성, 권력과 의존을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교환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되며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환과 권력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던 Blau의 이론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권력과 의존이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 측면이라고 보았다.

Emerson은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가 자신에게 자원을 의존하는 정도

만큼의 권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즉 권력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진다. 권력의 원천이 되는 의존은 한 사람이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정도로서, 다른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원이 갖는 가치의 정도와 이 자원의 대안이 매우 적거나 획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 모두는 상당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행위자가 교환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특정 행위자는 권력을 사용하여 의존하는 교환상대를 착취하거나 그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권력적 이점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교환관계에서 권력-의존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에 제시하는 균형화 전략을 사용하여 다시 권력-의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교환관계 속에서 하나의 교환관계는 다른 교환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두 교환관계는 서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교환관계는 더 큰 교환네트워크 내에 존재하게 된다. 네트워크(network)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행위자들이 자원분배를 놓고 협상하는 상황(negotiated exchange)과 행위자들이 추후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상황(reciprocal exchange) 중의 하나의 유형을 갖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유형은 크게 일방적 독점, 분업, 사회적 서클(social circle), 계층화라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Turner, 2019).

일방적 독점 유형은 행위자 A가 여러 명의 행위자 B들에게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명의 행위자 B들은 A에게 보상을 제공하지만, A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원천을 가진 반면 B들에게는 A만이 보상의 원천이 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경우에 A는 B를

착취하는 불균형한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분업 유형은 일방적 독점 속에서 교환관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B가 A에게 서로 다른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 각각의 B가 A와 독자적 자원교환관계 즉, 분업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서클 유형은 상이한 자원을 가진 행위자들 간에 동일한 자원(예: 애정과 애정, 조언과 조언, 재화와 재화 등)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지면 모든 행위자가 서로 균형 잡힌 교환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교환관계가 사회적 서클 내부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폐쇄적 체계가 된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유형의 독점상황이 야기되고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계층화 유형은 교환 네트워크 내의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서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경우 동일한 가치를 지닌 자원을 유사한 수준에서 갖고 있는 행위자들끼리 새로운 사회적 서클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환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양의 자원을 가진 중심부와 주변부의 여러 개 서클 또는 네트워크로 나뉘지게 되고, 불평등한 자원 배분에 따라 권력과 의존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환네트워크 속에서 권력-의존관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균형화(balancing)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Turner, 2019; 최옥채 외, 2020).

첫째,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원으로 보상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면, 받은 보상과 유사한 가치나 자원으로 대체하여 불균형을 상쇄한다.

둘째, 다른 자원의 대안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자원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른 곳에서 획득함으로써 의존도를 줄이거나 균형을 맞춘다.

셋째,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여

교환의 조건을 향상시킨다.

넷째, 강제력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물리적 힘, 보상 철회, 위협, 윤리적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자원을 이끌어낸다.

다섯째, 원하는 욕구나 자원을 포기하는 전략이다. 원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받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써 교환관계의 불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한다.

여섯째,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동일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이 가진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4) 교환관계와 헌신과 정의

Emerson은 권력적 우위를 점한 행위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가져오기 위해 교환관계가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Cook은 권력과 헌신(commitment)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헌신은 행위자가 다른 잠재적 대안 대신 현재의 교환상대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교환상대가 다른 잠재적 교환상대보다 더 적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현재의 교환상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더 큰 권력을 가진 행위자가 헌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만, 오히려 다른 잠재적 교환상대를 탐색하는 활동을 감소시키고 교환행동에 내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권력이 있는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행위자의 헌신을 끌어내게 되면 그들의 권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권력을 균형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헌신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애착과 지지를 갖게 만들고, 그로 인해 교환관계의 상대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정서적 효용(emotional utility)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Cook은 사회적 교환에서 정의의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이 그것이다. 분배 정의는 행위자 간에 자원을 할당하는 규범이나 규칙과 관련된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몫을 나눠 갖는 평등(equality)과 결과물을 만드는데 투입한 기여도에 따라 할당하는 형평(equity) 또는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해주는 것이 속한다. 절차적 정의는 협상으로부터 도출되는 분배 결과보다는 협상과정 자체가 얼마나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는가를 말한다. 만약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분배의 결과가 바람직하고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면 분배절차에 덜 비판적이 되지만, 분배 결과가 좋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여기게 되면 공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행위자가 각각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나누는 형평(equ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권력을 더 많이 가진 행위자의 권력 사용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 이처럼 교환관계에서 권력 사용이 정의롭다는 인식을 얻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배와 절차적 정의와 일치하게 되면 권력 사용은 균형적 교환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력 상 유리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가 정의의 규칙을 어기거나 행위가 부정의하다는 인식을 얻게 되면 권력 사용은 불균형한 교환관계를 지속시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는 할 수만 있다면 교환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탐색하게 된다.

3. 사회변동과 발전에 대한 관점

교환이론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고루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상호작용관계를 포함한 사회구조의 형성과 유지, 발전과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철우, 2017a). 즉, 교환이론은 인간의 역사가 곧 교환행위의 누적이라고 보고,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서 교환자원을 주고받는 반복적 행동이라고 본다.

Homans는 사회적 행동은 적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환행위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익이나 보상, 효용을 얻을 수 있을 때 사회관계가 유지되고, 이익이 많을수록 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아지고 사회적 관계는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자원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새로운 행동을 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사회조직화가 이루어지고, 권력과 역량에 따라 사회조직이 분화되고 정교한 사회구조가 형성된다(Turner, 2019). 그러나 사회적 교환행위를 통하여 기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비용을 치르게 되면 분노나 공격행동을 하게 되므로 교환관계는 불안정해지며, 새로운 교환관계를 추구하게 되므로 사회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이철우, 2017a).

Blau는 사회적 교환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집단을 형성하고 소집단사이에서도 교환관계가 성립되어 집단이 더욱 정교화되어 더 큰 집단으로 발전해 간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가치 있

는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교환관계에서 권력을 갖게 되며, 자원이 적은 사람에게 존중과 인정, 복종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조직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의 분화가 일어난다. 사회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환의 합리성, 상호성,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교환관계에 불균형 상태가 유발되면,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박탈감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집합체를 이루어 조직적으로 저항하게 됨으로써 사회변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반대로 교환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조직이 교환과 관련된 정당하고 공통의 가치를 반영한 규범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면, 기존의 권력-의존관계가 정당화되고 조직이 재통합되어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merson은 하나의 교환관계가 다른 교환관계에 영향을 받는 교환네트워크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으므로, 교환관계에 참여하는 행위자 모두는 상당한 정도의 상호의존성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행위자가 교환상대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특정 행위자는 권력을 사용하여 의존하는 교환상대를 착취하거나 그로부터 자원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권력적 이점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교환관계에서 권력-의존관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균형화 전략을 사용하여 권력-의존관계의 균형을 회복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로 사회구조의 안정과 변동이 결정된다고 본다.

4.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의 적용

1)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

교환이론에서는 교환관계가 단절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할 때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이철우, 2017b), 교환관계에서 교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고갈되거나, 자원의 가치가 저하되어서, 종속적 지위로 밀려나게 되면 비인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자원의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교환관계에서의 자원의 부족이나 가치하락 뿐 아니라 교환되는 자원의 양과 내용 그리고 자원분배의 절차와 결과가 사회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비물질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만약 경제적 교환을 통하여 적절한 재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적 빈곤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 인정이나 존중, 사랑 등의 사회적 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결속의 와해, 소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어떤 자원이든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담보되지 않으면, 사회성원간 또는 사회계층간의 불평등이나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환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권력과 의존관계 역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 합리성, 상호성,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환관계에 불균형한 권력-의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원과 권력을 갖지 못한 사회성원은 정서적 박탈감과 함께 자신의 욕구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게 되고, 그로 인해 미충족 욕구와 생활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원이 적은 성원이 사용한 권력 균형화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교환상대보다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진 행위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자원을 독점해버리거나 교환상

대를 착취할 경우에 사회문제가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교환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하거나, 교환자원의 가치가 약해지거나 고갈되어 대등한 교환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권중돈, 2019). 교환이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장애인의 교환 자원 부족과 교환자원에 대한 평가절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원으로의 보상, ② 다른 보상 원천의 개발, ③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 획득, ④ 제도의 강화를 통한 강제력 사용, ⑤ 연합 활동, ⑥ 소유 자원의 질 향상 등이 있다(이웅, 김동기, 2012).

2)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대한 함의

교환이론에서 교환관계가 단절되거나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발생한 사회문제나 개인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교환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균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① 유사한 가치나 자원으로 대체하거나, ② 다른 자원의 대안을 개발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거나, ③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여 교환의 조건을 향상시키거나, ④ 강제력(보상 철회, 위협, 윤리적 죄책감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대로부터 원하는 자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거나, ⑤ 원하는 자원이나 서비스를 상대방에게 받지 않고 참고 견뎌서 이겨내게 하거나, ⑥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물질적 부족이나 결핍상태에 있는 빈민이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금품 지급이나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부족한 자원은 보충해주게 되면 정상적 생활로의 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성원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해지거나 정상적 사회참여가 가능해지면, 오히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이철우, 2017a). 그리고 교환이론에서는 성인과 중장년기에 경제생활을 통하여 국가에 세금 혹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노후에 다시 기초연금 등의 소득지원을 받는 것도 일종의 교환관계의 하나이고, 사회복지제도의 한 방법이 된다. 그리고 부모가 노인이 되어 생계능력이 제한되거나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자녀가 부양하는 비공식적 자원 교환행위 역시 사회복지의 방법으로 간주한다(이철우, 2017b).

복지국가와 관련된 교환이론의 입장은 상반된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Mau, 2004). 한편에서는 모든 사회성원이 합리적인 교환을 통해 착한 소비(good buy)를 한다고 가정하여,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삶의 질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복지급여나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개인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전체 사회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호간에 협력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선의(善意)를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가장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개개인이 착한 소비를 하지 않고 개인이기주의(egoism)에 입각하여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누적되게 되면, 복지국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교환이론의 또 다른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경우 교환의 정의의 원칙과 상호성의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이

므로, 상호간의 헌신, 존중, 인정, 사랑, 도덕적 의무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정책의 개발하고 집행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기여는 최소화하고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혜택과 같은 결과를 최대화하려는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차별적 보상지급이나 강제적 세금부과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강정한 외, 2013). 이와 같이 교환이론의 한 관점에서는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와 내담자의 원조관계 역시 교환행위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내담자에 비해 공식적 지위, 지식, 기술 등의 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만약 내담자와의 원조관계에서 상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권력-의존관계가 형성되고 권력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협력적 관계형성은 물론 변화를 위한 개입을 방해하게 된다(Rice and Girvin, 2014).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의 원조과정에서 내담자의 인정이나 존중 등을 통하여 높은 지위와 권력을 탐해서는 안되며, 내담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내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하게 될 경우, 보상의 한계효용이 낮아져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적절한 보상 수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식적 사회복지제도뿐 아니라 비공식적 관계망의 복지기능 작동원리도 교환이론에 입각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타인이나 사회에 원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사회관계망의 호위모형(護衛模型)(convoy model)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이 사회적 도움

을 필요로 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원이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으로 구성된 1차적 관계망(primary network)의 지지나 도움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으로 친구나 이웃과 같은 2차적 비공식적 관계망(secondary network) 그리고 종교단체, 지역모임 등의 의사공식적 관계망(quasi-formal network)의 도움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사회복지조직 등의 공식적 관계망(formal network)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과 보상을 얻는 위계적 보상속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개인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심리사회적 서비스, 경제적 급여와 재화, 또는 수단적 서비스, 정보적 지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나 도움을 주고받지만, 생활주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지위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

1. 교환이론의 합리성 교환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분석해보고, 그 원칙의 타당성을 비판해보시오.
2. 귀하의 행동 중에서 교환이론의 한계효용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제시해 보시오.
3. 우리 사회의 효(孝)의 규범을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보시오.
4. 부모님을 면담하여, 인생 생활주기에 따라 개인의 교환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시오.

5. 귀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인관계에서 교환의 상호성 원칙과 정의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예측해보시오.
6. 귀하가 맺고 있는 교환네트워크가 귀하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시오.
7.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환관계의 권력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귀하가 주로 사용한 균형화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시오.
8.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 관한 게임이론을 깊이 학습해 보시오.
9. 사회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오.
10.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와 정신장애를 가진 내담자의 원조관계 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시오.